

BOOK ABOUT  
GOCHANG  
GETBOL



고창갯벌책



# 고창갯벌책

BOOK ABOUT GOCHANG GETBOL

※ 본 책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주로 일반명(Common name)을 사용하였으며, 영어 이름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일부 생물은 학명(Scientific name)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일반명은 지역이나 참고 자료에 따라 다르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 For clarity and ease of understanding, this book primarily uses common names. For certain species whose English names have not been clearly established, the scientific names are used instead. Please note that common names may vary depending on region or reference materials.



“질문하는 세계유산, 연결하는 문화예술교육”

## 고창문화예술배움터 × 세계유산 〈그래서예술학교〉

‘그래서예술학교’는 고창의 자긍심이자 세계가 함께 지켜가는 7가지 유네스코 등재 자산(고인돌, 갯벌, 판소리, 농악,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을 기반으로, 문화예술을 통해 배우고 창작하며 치유와 공존의 가치를 실천하는 교육 플랫폼입니다.

‘그래서’라는 이름에는, 앞선 경험이 새로운 질문과 실천으로 이어진다는 교육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예술학교’는 세계유산을 마침표가 아닌, 새로운 질문의 시작점으로 삼아 그 안에 담긴 기억과 이야기를 오늘의 삶 속에서 다시 발견하고 해석하는 배움의 여정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예술학교’는 유아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세대와 삶의 배경을 가진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총 12개의 융합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유산에 담긴 생태적 가치, 인권과 평등, 역사적 성찰, 문화다양성 등의 가치를 일상의 언어로 체화하도록 돕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서예술학교’는 고창 곳곳에서 세대와 세대, 사람과 자연, 지역과 세계를 잇는 교육 실천을 이어가며, 고창만의 치유문화예술교육 모델로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그 여정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imagining World Heritage through Arts Education”

## Gochang Arts Learning Center X UNESCO World Heritage 〈Geuraeseo Arts School〉

〈Geuraeseo(그래서, Therefore) Arts School〉 is an educational platform that celebrates Gochang’s pride — its seven UNESCO-listed heritage assets: the Dolmen Sites, Getbol, Pansori, Nongak, Donghak Peasant Revolution Archives, Biosphere Reserve, and Global Geopark. Through arts and culture, the program fosters learning, creativity, healing, and coexist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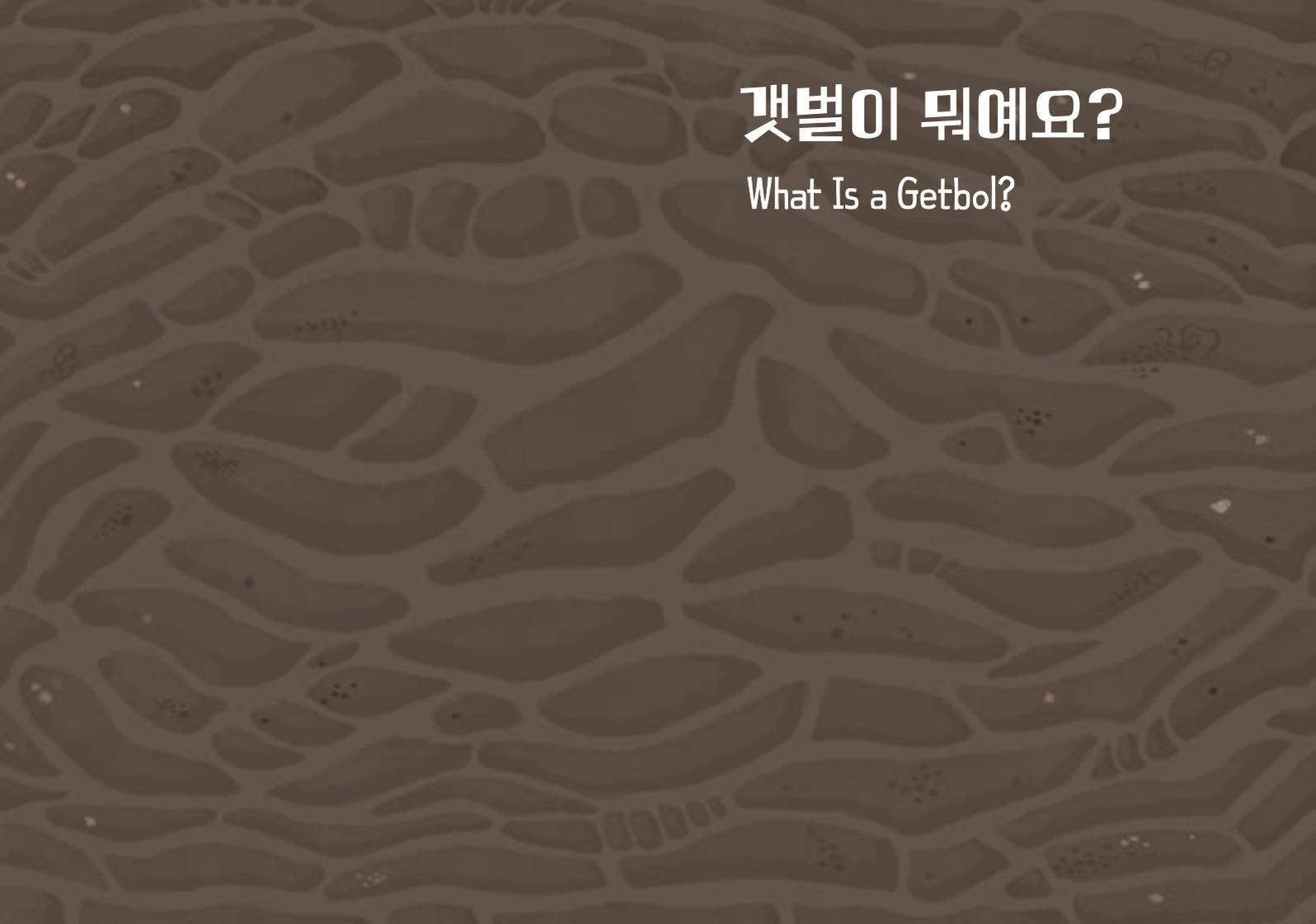
The name “Geuraeseo” reflects the school’s belief that every experience leads to new questions and new forms of practice. Rather than treating heritage as a conclusion, 〈Geuraeseo Arts School〉 sees it as a point of departure — rediscovering and reinterpreting the memories and meanings of World Heritage through the lens of contemporary life.

Open to participants of all ages — from children to seniors — the school offers twelve interdisciplinary arts education programs. Each program helps participants internalize the values embedded in World Heritage, such as ecological awareness, human rights, equality, historical reflection, and cultural diversity,

translating them into everyday language and practice.

Moving forward, 〈Geuraeseo Arts School〉 will continue to connect generations, people, and nature — bridging Gochang’s local context with the wider world. Through these ongoing efforts, it aims to grow as a healing and creative model of cultural and arts education unique to Gochang. We invite you to be part of this journey.





갯벌이 뭐예요?

What Is a Getbol?



## 갯벌이 뭐예요?



갯벌은 바닷물이 빠졌을 때 드러나는 넓고 촉촉한 땅입니다. 달의 힘이 약해질 때, 그동안 올라왔던 물이 해안에서 밀려나면서 바닥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바닷물은 하루에 두 번 크게 드나듭니다. 이를 밀물과 썰물이라고 부릅니다.

갯벌은 여러 요소가 맞물려야만 생성되는 진귀한 공간입니다. 우선, 수심이 낮고 바닥의 경사가 완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닷물이 넓고 크게 드나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밀물과 썰물의 수위 차이가 커야 합니다. 이를 조차라고 하는데, 조차가 크면 그만큼 드러나는 땅의 넓이도 넓어지고, 바닷물의 흐름과 \*퇴적 작용도 더 활발해집니다. 갯벌에 사는 저서생물들이

*\*퇴적 작용(Sedimentation) : 물, 바람, 빙하 같은 자연의 힘이 흙, 모래, 진흙 같은 물질을 한곳에 쌓이게 만드는 과정.*



## What Is a Getbol (Tidal Flat)?



A Getbol is a wide, moist stretch of land that appears when the sea pulls away from the shore. As the tide recedes under the Moon's influence, the water that once covered the shore flows back, uncovering the getbols. This movement of the tides happens twice a day — what we call high tide and low tide.

A Getbol is a rare and remarkable environment, formed only when many natural forces work together. First, the water must be shallow and the seafloor gently sloped so that the tides can move far inland and back again. There also needs to be a large difference between high and low tide, known as the tidal range. When the tidal range is wide, more ground is exposed, the water flow becomes stronger, and the process of \*sedimentation — where sand and mud

*\*Sedimentation : The natural process by which water, wind, or ice carries and deposits soil, sand, or mud in one place.*



활동하려면 물이 빠지는 시간도 충분해야 하기에, 조차가 큰 것이 유리하지요.

파도의 세기도 영향을 미칩니다. 파도가 세면 퇴적물이 씻겨 나가 모래나 돌이 많은 갯벌이 되고, 파도가 약하면 고운 입자가 내려앉아 펄갯벌이 되지요. 마지막으로 강이나 하천이 가까운 곳일수록 좋습니다. 갯벌의 퇴적물은 대부분 육지에서 흘러온 흙과 유기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쌓인 퇴적물은 저서생물의 집이자 먹이가 되고, 저서 생물들은 유기물을 먹으며 바다를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gradually build up — grows more active. Bottom-dwelling creatures thrive when the water stays out longer, giving them time to move, and feed.

The strength of the waves also affects the getbol. Strong waves wash away sediments, creating sandy or rocky flats, while gentle waves allow fine particles to settle, forming muddy getbols. Finally, it's best when rivers or streams are nearby, because most of the sediment comes from soil and organic matter carried from the land. These materials become both food and shelter for countless small creatures, who in turn help keep the ocean clean by feeding on the organic remai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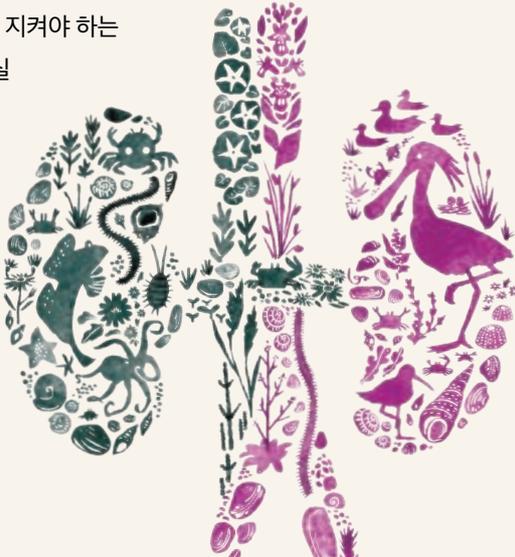


# 갯벌의 별명

갯벌은 별명이 참 많습니다. 그 중 하나는 '지구의 콩팥'입니다. 콩팥이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듯, 갯벌도 육지와 바다에서 흘러든 오염물질과 유기물을 정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붙여졌지요. 또 다른 별명은 '생명의 요람'입니다. 수많은 저서생물과 염생식물들이 살아가는 터전이며, 철새와 어류의 먹이터이자 산란장이 되어주거든요.

우리나라 서/남해안이 포함된 황해 갯벌은 서울의 네 배에 달합니다. 이 거대한 갯벌은 심각한 멸종 위기종을 포함해 약 2,169종의 동식물을 품고 있지요. 우리가

갯벌을 아끼고 지켜야 하는 이유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겠지요.



# What People Call the Getbol

The Getbol has many nicknames. One of them is “the kidney of the Earth.” Just as kidneys filter waste from our bodies, the Getbol filters and purifies pollutants and organic matter flowing in from both the land and the sea.

Another nickname is “the cradle of life.” It serves as a home for countless bottom-dwelling creatures and salt-tolerant plants, as well as a feeding ground and nursery for migratory birds and fish.

The Yellow Sea Getbol, which includes Korea’s west coast, spans an area four times the size of Seoul. This vast wetland is home to around 2,169 species of plants and animals, including several that are critically endangered. That fact alone is reason enough to cherish and protect the Getbols.



## 고창 갯벌

고창 갯벌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형태의 갯벌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고창 갯벌이 자리한 '곰소만'은 육지 쪽으로 깊게 들어온 \*만 형태로, 해안선이 동서로 길게 뻗어 있고 바깥은 바다로 트여 있습니다. 이런 지리적 특성과 강한 조류는 활발한 퇴적 작용을 만들어내지요. 덕분에 염습지, 펼갯벌, 모래갯벌, 혼합갯벌, 암반갯벌, 사구, \*셰니어 등 다양한 형태의 갯벌 환경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만큼 풍부한 동식물 생태계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갯벌 중에서도 손꼽히는 종 다양성을 가진 곳이지요.

*\*만(Bay) : 바다의 한 부분이 육지 쪽으로 움푹 들어와 있는 곳*

*\*셰니어(chenier) : 조개껍데기나 모래가 바람과 파도에 의해 해안선에 좁고 길게 쌓여 형성된 언덕. 고창 갯벌에서는 셰니어와 염습지, 사구, 펼갯벌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어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갯벌 지형을 이루고 있다.*

## Gochang Getbol

The Gochang Getbol is one of the few places on Earth where nearly every type of getbol can be seen in one place. Located within Gomso \*Bay — a bay that curves deep inland with a long east-west shoreline and an open mouth to the sea — the area's unique geography and strong tidal currents create active sedimentation processes. This has shaped a remarkably diverse coastal landscape, including salt marshes, mudflats, sandy flats, mixed flats, rocky shores, sand dunes, and \*cheniers. Together, they support an exceptionally rich ecosystem of plants and animals, making Gochang one of the most biodiverse tidal environments in the world.

Thanks to these conditions, more than 100,000 migratory

*\*Bay: A sea area curving into the land.*

*\*Chenier: A narrow coastal ridge of shells or sand shaped by wind and waves. In Gochang, cheniers, marshes, dunes, and mudflats connect to form a rare landscape.*





이런 환경 덕분에 고창 갯벌에는 매년 약 10만 마리 이상의 철새들이 날아옵니다. 그들의 주된 먹이가 되는 갯벌생물들이 풍부하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는 전 세계에 200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뿔제비갈매기를 드물게 볼 수 있고, 멸종 위기종인 황새의 월동 장면을 관찰할 수도 있지요. 고창은 또, 전 세계에서 단 하나, 1속 1종으로 존재하는 황해 고유종 ‘범계’의 국내 최대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고창 갯벌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EAAF, East Asian Australasian Flyway)’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이동 경로는 호주, 뉴질랜드에서 동북아시아와 중국, 시베리아, 알래스카까지 이어지는 15,000km 이상의 여정으로, 전 세계 9개 철새이동경로(Flyway) 중 가장 많은 철새가 오가는 길

birds visit the Gochang Getbol each year, drawn by the abundance of benthic life that thrives here. Rare species such as the Chinese Crested Tern, of which fewer than 200 remain globally, have been spotted in this area, and the Oriental Stork, an endangered species, is known to winter here. Gochang is also the largest habitat in Korea for the Tiger Crab (*Orithyia sinica*), a unique species native to the Yellow Sea and the only member of its genus in the world.

The Gochang Getbol lies along the 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EAAF), a 15,000-kilometer migratory route stretching from Australia and New Zealand to Northeast Asia, China, Siberia, and Alaska. Among the world's nine major bird

이지요. 한국 갯벌은 이 경로에서 아주 중요한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합니다. 도요새류, 물떼새류, 기러기, 오리류, 저어새류 등 다양한 철새들이 이 갯벌을 들러 휴식하고, 먹고, 에너지를 충전해 다음 여정을 이어갑니다.

이처럼 생태적 가치가 큰 공간인 만큼, 고창 갯벌은 국내외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국제적으로는 람사르습지, EAAF네트워크서식지, 그리고 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으로도 등재되어 있지요. 특히 새만금 갯벌이 매립된 이후, 고창 갯벌은 전북 지역에 남은 가장 큰 갯벌이 되었고, 전 세계 주요 철새이동경로 중에서도 가장 큰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전과 관심이 더욱 절실한 공간입니다.

migration routes, this flyway hosts the greatest number of migratory birds. Korea's getbols play a vital role as a "stopover site" along the route, where shorebirds, waders, geese, ducks, and spoonbills rest, feed, and refuel before continuing their long journey.

Because of its immense ecological importance, the Gochang Getbol continues to receive national and international recognition and protection. Domestically, it is designated as a Wetland Protected Area, while internationally it is listed as a Ramsar Wetland, an EAAF Network Site, and a UNESCO World Natural Heritage Site.

Since the reclamation of the Saemangeum getbol, Gochang has become the largest remaining getbol in the Jeollabuk-do region — and one of the most threatened along the entire flyway. For that reason, protecting and preserving this irreplaceable landscape has never been more important.





## 갯벌을 지키는 작은 실천

갯벌은 섬세한 공간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갯벌 생물들에게는 큰 영향을 줄 수 있지요. 그래서 갯벌을 방문할 때,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에티켓을 안내합니다.

### 갯벌에서 온 것은 갯벌에 남겨두자

조개껍데기, 작은 돌맹이, 해조류...  
별것 아닌 것처럼 보어도 저서생물에게는  
집이자 은신처가 되어 줍니다.  
채집을 자제하고, 갯벌에서 온 것들은  
갯벌에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갯벌 청소부가 되어주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건 기본!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갯벌에서 마주친 쓰레기를 하나씩만 주워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 Small Actions to Protect the Getbols

The Getbols are delicate ecosystems where even small actions can have big impacts. Here are some simple etiquettes to follow when visiting.

### Leave What Belongs to the Getbol

Shells, pebbles, and seaweed may seem trivial, but they serve as homes and shelters for many organisms. Avoid collecting them — it's best to leave everything where it belongs.

### Be a Getbol Cleaner

Don't litter — and take one step further by picking up even one piece of trash you find. Small actions make big changes.





## 쓰레기를 잘 돌보는 삶을 살자

우리가 일상에서 버린 쓰레기는  
하천을 따라 바다로,  
그리고 결국 갯벌로 흘러들어갑니다.  
특히 플라스틱은 갯벌 생물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되지요.  
분리배출을 꼼꼼히 하는 것뿐 아니라,  
애초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갯벌과 그 생명들에 관심 갖자

갯벌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수많은 생명이 함께 살아가는 생태계입니다.  
갯벌 매립이나 훼손이 논의되는 상황이라면  
시민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주변 사람들과 갯벌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한 실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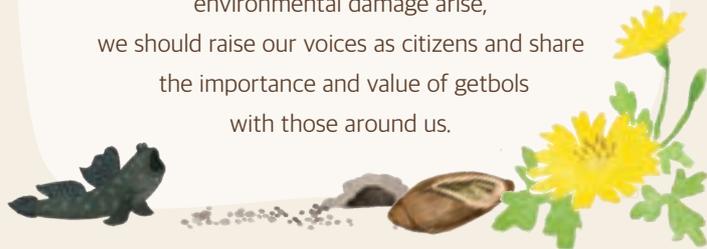
## Care for Your Was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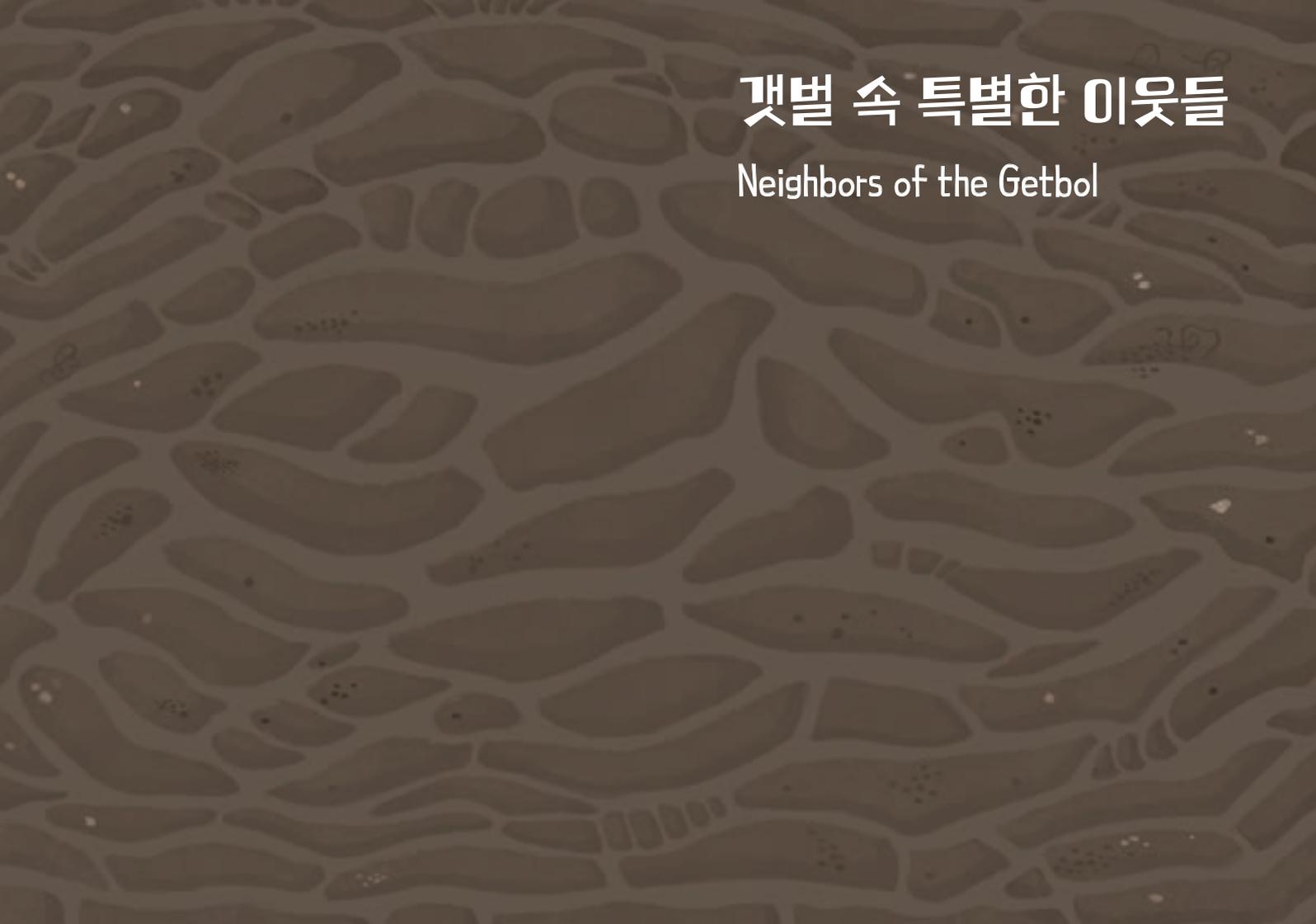


The waste we throw away in daily life  
eventually travels through rivers to the sea —  
and finally to the getbols.  
In particular, plastic waste poses a serious threat  
to the organisms living there.  
It's important not only to separate and recycle properly  
but also to reduce the use of disposable products.

## Show Care and Speak for the Getbol

Getbols are not just a sightseeing spot  
but a vital ecosystem  
shared by countless living beings.  
When issues such as reclamation or  
environmental damage arise,  
we should raise our voices as citizens and share  
the importance and value of getbols  
with those around us.





갯벌 속 특별한 이웃들

Neighbors of the Getbol

# 검은머리물떼새

## Eurasian Oystercatcher

학명 · Scientific Name | *Haematopus ostralegus*



카테고리 · Category	한글	English
크기 · Size	약 40~47cm	Approx. 40~47cm
서식지 · Habitat	한국 서남해안, 중국, 일본, 대만의 해안 지역	Coastal areas of south-western Korea, China, Japan, and Taiwan
이동 형태 · Migration Type	깃새이자 겨울철새	Resident and winter visitor
식성 · Diet	굴, 조개, 작은 게, 갯지렁이 등	Oysters, clams, small crabs, polychaete worms etc.
번식 시기 · Breeding Season	4월 중순~6월	mid-April to June
울음소리 · Call	높고 날카롭지만 간결한 '삐, 삐'	Sharp, high-pitched "pit, pit" notes
특징 · Conservation Status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천연기념물 제326호</li><li>멸종위기 야생생물 II 급</li><li>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 '준위협(NT)' 등재</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Natural Monument No. 326 (Korea)</li><li>Endangered Species, Class II (Korea)</li><li>IUCN Red List: Near Threatened (NT)</li></ul>

## 검은머리물떼새에 대해 더 알아 볼까요?

당근처럼 생긴 부리에 검은 코트를 걸친 듯한 모습, 그리고 붉은 눈까지. 검은머리물떼새는 한 번 보면 쉽게 잊을 수 없는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길고 곧은 주황빛 부리입니다. 옆면이 납작한 나이프 모양이지요. 이 단단한 부리로 굴이나 조개를 사냥합니다. 고개를 옆으로 살짝 틀어, 부리를 꺾대기 사이로 밀어 넣은 뒤 비틀어 속살을 꺼내 먹습니다. 영어권에서는 이름에서부터 ‘굴잡이(Oystercatcher)’라 불립니다.

검은머리물떼새는 보통 4~5마리가 한 무리를 이루어 생활합니다. 사람이 없는 바위섬이나 갯벌, 강 하구 근처가 이들의 주 무대이지요. 물갈퀴가 없기 때문에 바닷물이 빠지는 간조 때는 갯벌 위를 걸으며 사냥하고, 물이 다시 차오르는 만조 때가 되면 해안 가까이로 이동해 휴식을 취합니다.

우리나라의 검은머리물떼새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EAAF, \*16페이지 참고)에서만 서식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4개의 아종이 알려져 있으며, 그중 한국에 서식하는 아종은 유럽 지역 개체들과 서식 환경과 주요 먹이가 다릅니다. 몸집이 더 작고 부리가 긴 것이 특징이지요. 하지만 갯벌이 점점 줄어들고 먹이 환경이 악화되면서, 검은머리물떼새는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 More about Eurasian Oystercatcher

With its carrot-colored beak, sleek black coat, and striking red eyes, the Eurasian Oystercatcher is a bird you won't easily forget. Its most distinctive feature is its long, straight orange bill — It has a knife-shaped bill with flattened sides. With this sturdy tool, it hunts oysters and clams, twisting its head slightly to wedge the bill between the shells and pry out the soft flesh inside. Its English name, Oystercatcher, comes straight from this remarkable skill.

Usually seen in small groups of four or five, these birds make their home on remote rocky islets, getbols, and estuaries. Lacking webbed feet, they walk across the exposed mudflats during low tide in search of food, then move closer to the shore to rest when the sea rises again.

The Oystercatchers found in Korea live exclusively along the 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EAAF, see p.17). Although four subspecies of Eurasian Oystercatcher exist worldwide, the Korean population differs from its European relatives in both habitat and diet. They are slightly smaller, with longer bills — an adaptation suited to their life on the getbols of the Yellow Sea. But as these getbols vanish and food sources dwindle, these birds now face a growing threat of extinction.

# 알락꼬리마도요

## Far Eastern Curlew

학명 · Scientific Name | *Numenius madagascariensis*



카테고리 · Category	한글	English
크기 · Size	약 58~63cm	Approx. 58-63cm
관찰지 · Habitat in Korea	서남해안 갯벌, 강 하구	Southwestern coastal getbols and river estuaries
이동 형태 · Migration Type	나그네새	Passage migrant
식성 · Diet	게, 갯지렁이 등	Crabs, polychaete worms, small aquatic animals etc.
번식 시기 · Breeding Season	봄(3~5월), 가을(8~10월)	Spring (Mar-May), Autumn (Aug-Oct)
울음소리 · Call	삐-요, 삐-요, 삐-요, 호이, 호이	"pi-yo, pi-yo," or soft "hoi-hoi" notes
특징 · Conservation Stat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천연기념물 제326호</li> <li>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li> <li>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 '취약'(Vulnerable, VU) 등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Natural Monument No. 326 (Republic of Korea)</li> <li>Endangered Species, Class II (Korea)</li> <li>IUCN Red List: Vulnerable (VU)</li> </ul>

## 알락꼬리마도요에 대해 더 알아 볼까요?

‘알록달록한 꼬리를 가진 큰 도요’라는 뜻의 알락꼬리마도요는 길고 아래로 휘어진 부리, 가늘고 긴 다리, 그리고 황갈색 바탕 위에 흙빛 무늬가 촘촘히 덮인 깃털이 특징입니다. 도요과 새들 중에서도 가장 큰 몸집을 자랑하지요.

알락꼬리마도요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EAAF)를 따라 이동하는 대표적인 새입니다. 겨울에는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등지에서 월동하고, 봄이 되면 시베리아와 중국 동북부 지역에서 번식합니다. 이들의 이동거리는 무려 10,000km가 넘지요.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장거리 철새입니다.

바다 위를 끊임없이 이동하다 보면, 중간에 쉴 수 있는 곳이 꼭 필요합니다. 그때 알락꼬리마도요가 찾는 곳이 바로 우리나라 갯벌입니다. 이런 장소를 ‘중간 기착지’라고 부르지요. 먼 여정에 지친 이들은 우리나라 갯벌에서 약 한 달가량 머물며 배를 채우고 기력을 회복합니다. 이곳에서 충분히 쉬지 못하면, 목적지에 닿기도 전에 도태되거나, 설령 도착하더라도 몸의 상태가 나빠져 번식이 어려워집니다. 알락꼬리마도요가 가장 즐겨 먹는 먹이는 ‘칠게’입니다. 갯벌을 천천히 걸으며 긴 꼬챙이 같은 부리로 조심스레 뽕을 찌르다가 부리 끝의 촉각으로 게의 움직임을 느끼면, 격렬하게 찌르며 사냥하지요. 작은 개체는 통째로 삼키지만, 큰 것은 여러 번에 나눠 먹습니다.

## More about Far Eastern Curlew

The Korean name Al-lak-ggo-ri-ma-do-yo means “the large curlew with a colorful tail.” It’s easy to recognize this bird by its long, downward-curving bill, slender legs, and feathers patterned in warm brown tones with fine, earthy markings. Among all the shorebirds, it is one of the largest species.

The Far Eastern Curlew is a flagship migratory bird of the 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EAAF). It spends the winter across Australia, New Zealand, and the Philippines, then travels north each spring to breed in Siberia and northeastern China — a journey spanning more than 10,000 kilometers.

Traveling endlessly over the sea, these birds find refuge on the getbols of Korea — ‘stopover sites’ where they can feed and recover their strength before continuing north. Without enough time to rest and feed here, many would fail to reach their destination or arrive too weak to breed successfully.

Their favorite prey is the fiddler crab (*Macrophthalmus japonicus*). They stroll slowly across the mud, probing the ground with their long, skewer-like bills. Once they sense movement beneath the surface, they strike rapidly until they catch it — swallowing smaller crabs whole and eating larger ones piece by piece.

# 갯벌에서 관찰할 수 있는 다른 새들

Other Birds You Can See in the Getbol



노랑부리저어새  
Eurasian spoonbill



황새  
Oriental stork



흑부리오리  
Common shelduck



중대백로  
Great egret



큰기러기  
Taiga bean goose



뿔제비갈매기  
Chinese crested tern



쇠오리  
Eurasian teal



청다리도요  
Common greenshank



흰물떼새  
Kentish Plover



좁도요  
Red-necked st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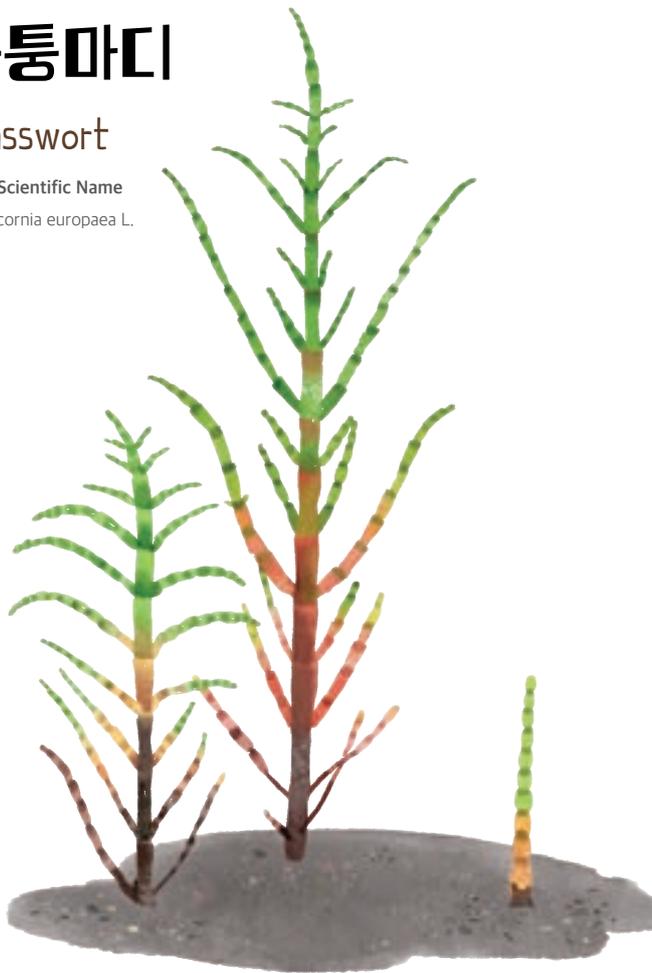


# 통통마디

## Glasswort

학명 · Scientific Name

| *Salicornia europaea* L.



카테고리 · Category	한글	English
생물학적 분류 · Biological Classification	명아주과 통통마디속	Family Amaranthaceae, Genus Salicornia
크기 · Height	약 10~40cm	Approx. 10-40cm
생장 주기 · Life Cycle	한해살이풀	Annual plant
개화 시기 · Flowering Season	8~9월	August-September
국내 서식지 · Habitat in Korea	서해안의 갯벌, 염습지	Western coastal getbols and salt marshes
해외 서식지 · Global Distribution	러시아, 인도, 중국, 일본, 남아프리카, 유럽, 북아메리카	Russia, India, China, Japan, South Africa, Europe, North America

## 통통마디에 대해 더 알아 볼까요?

통통마디는 이름처럼 줄기 마디마디가 통통하게 이어져 있는 독특한 외형을 가졌습니다. 앞은 거의 보이지 않아, 마치 줄기만 있는 식물처럼 보이지요. 5억 년 전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간직한, 지금까지 크게 진화하지 않은 원시 식물입니다.

이 식물은 갯벌이나 염습지처럼 소금기가 많은 땅에서도 자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수분이 많은 땅을 좋아하지만, 바닷물에 완전히 잠기면 살기 어렵지요. 그래서 갯벌에서도 바닷물이 밀려 왔다가 금세 빠져나가는, 물이 오래 머물지 않는 가장자리 부분에 뿌리를 내립니다. 이곳에서 통통마디는 줄기 속에 염분을 저장해 토양의 염도를 낮추는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그 덕분에 다른 생물들이 갯벌에서 살아갈 수 있고, 다양한 갯벌 생물의 서식지를 지켜주지요.

한해살이풀인 통통마디는 봄과 여름 내내 초록빛으로 갯벌을 물들입니다. 8월에서 9월 무렵이면 마디 사이로 작은 꽃이 피어나고, 그 자리에 검은 점처럼 보이는 씨앗이 맺히지요. 가을이 깊어질수록 초록빛은 점점 붉게 변해, 갯벌은 마치 붉은 카펫을 깔아놓은 듯한 장관을 이룹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함초(염초, 월경초)'라고도 불리며 오랫동안 식재료와 약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바닷물과 갯벌 속의 풍부한 미네랄을 품고 있어서 소금 대용으로 쓰이기도 하고, 샐러드나 나물로도 즐겨 먹습니다. 서양에서는 과거 이 식물을 태운 재를 유리(glass)재조에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Glasswort'라는 이름을 얻게되었지요.

## More about Glasswort

The Glasswort is made up of plump, bead-like joints along its stem, giving it an almost leafless look. It is one of the Earth's most ancient plants — a living relic that has changed little over the past 500 million years.

It thrives in salt-rich getbols and marshy shores, taking root along the upper flats where seawater briefly flows in and drains away. By storing salt in its succulent stems, it lowers the soil's salinity, allowing other life to flourish and sustaining the getbol ecosystem. An annual plant, the Glasswort cloaks the flats in green through spring and summer. In August and September, tiny flowers bloom between its joints, followed by black, pin-sized seeds. As autumn deepens, the stems turn crimson, spreading like a red carpet across the shore.

In Korea, it is called Hamcho and has long been used as both food and medicine. Rich in minerals from seawater and sediment, it serves as a natural salt substitute and is eaten as a salad or seasoned side dish. In Europe, people once burned it to make soda ash for glassmaking — which is how it came to be known as “Glasswort.”

# 순비기나무

## Beach Vitex

학명 · Scientific Name

| *Vitex rotundifolia* L. f.



카테고리 · Category	한글	English
생물학적 분류 · Biological Classification	꿀풀과(구 마편초과), 순비기나무속	Lamiaceae (formerly Verbenaceae), genus Vitex
크기 · Height	약 20~80cm	Approx. 20-80cm
생장 주기 · Life Cycle	다년생 관목	Perennial shrub
개화 시기 · Flowering Season	7~9월	July-September
국내 서식지 · Habitat in Korea	해안가	Coastal areas
해외 서식지 · Global Distribution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태평양 제도	Asia, Australia, and Pacific Islands

## 순비기나무에 대해 더 알아 볼까요?

두툼한 잎을 달고 덩굴처럼 모래 위를 넓게 덮고 있는 순비기나무는 해안이 생태계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염분에 강하고, 모래를 단단히 붙잡아주는 덕분에 해안 침식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척박한 모래땅이나 자갈땅에서도 잘 자라 우리나라 거의 모든 해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순비기나무는 떨기나무(관목)에 속합니다. 나무의 특성을 지니지만 큰 키로 곧게 자라기보다는 땅 가까이 퍼지며 자라는 형태입니다. 환경에 따라 적응력도 남다릅니다. 따뜻한 남쪽 지방에서는 겨울에도 잎을 달고 있는 상록수, 추운 북쪽 지방에서는 겨울에 잎을 떨어뜨리는 낙엽수로 자라지요.

여름이면 작지만 향기로운 보랏빛 꽃을 피워 곤충들을 불러들이고, 가을이 되면 작고 둥근 열매를 맺습니다. 이 열매는 두통 완화에 효과가 있어 예로부터 약재로 쓰였습니다. 잎과 줄기는 특유의 향이 있어 방향재로도 쓰이곤 하지요. 쓰임이 많은 식물이라 해안 마을 사람들의 삶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름에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순비기나무’는 일반적으로 ‘바닷가에 자라는 나무’라는 뜻으로 알려져 있지만, 제주 방언 ‘\*숨비’에서 비롯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해녀들이 잠수병을 치료하기 위해 이 나무 열매를 약재로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숨비나무’가 ‘순비기나무’로 변했다고 하지요.

*\*숨비 : 해녀가 숨을 비우고 들어간다는 뜻*

## More about Beach Vitex

With its rounded leaves and vine-like branches spreading over the sand, the beach vitex plays a vital role in coastal environments. It tolerates salt, anchors the sand, and prevents erosion — thriving even in barren, gravelly soil along much of Korea’s shoreline.

The beach vitex is a shrub, not a tall, upright tree. Rather than growing vertically, it spreads close to the ground, adapting its form to the harsh coastal environment. Its adaptability is remarkable — In the warm south it stays evergreen, while in colder northern regions it sheds its leaves for winter.

In summer, small violet blossoms perfume the air and draw insects. By autumn, they ripen into tiny, round fruits once used in traditional medicine for headaches. The plant’s aromatic leaves and stems also served as natural incense, linking it closely with the lives of coastal communities.

Even its name carries that connection. Sunbigina-mu literally means “tree growing by the sea,” but some trace it to the Jeju word sumbi. According to island lore, Jeju’s female divers used its fruit to ease decompression sickness — and over time, “Sumbi tree” became “Sunbigina-mu.”

*\*Sumbi: a Jeju dialect word meaning “to exhale before a dive,” used by haenyeo, the female divers of Jeju Island.*

# 갯벌에서 관찰할 수 있는 다른 염생생물들

Other Salt-tolerant Plants You Can See in the Getbol



갈대  
Common reed



해홍나물  
Annual seablite



갯개미취  
Sea aster



갯메꽃  
Sea bindweed



갯씀바귀  
*Ixeris repens*



갯잔디  
*Zoysia sinica*



갯질경  
Square-stalked sea laven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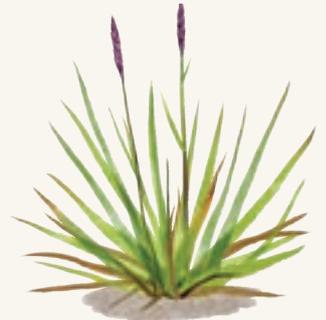
나문재  
*Suaeda glauca*



천일사초  
*Carex scabrifolia*



칠면초  
*Suaeda japonica*



# 범게

## Tiger Crab

학명 · Scientific Name | *Orithya sinica*



카테고리 · Category	한글	English
생물학적 분류 · Biological Classification	십각목, 범게과	Order Decapoda, Family Orithyiidae
크기 · Size	등껍질 폭 약 9cm	Carapace width about 9cm
활동 형태 · Activity Pattern	야행성	Nocturnal
번식기 · Breeding Season	4~5월	April-May
국내 서식지 · Habitat in Korea	서해안	West coast of Korea
해외 서식지 · Global Distribution	중국 연안	Coastal waters of China
식성 · Diet	작은 조개류, 고둥, 게 등	Small shellfish, snails, and crabs

## 범게에 대해 더 알아 볼까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동물은 호랑이지요. 그런데 호랑이를 닮은 데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서해안과 중국 연안에서만 발견되는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범게입니다. 등껍질에는 마치 우리를 꿰뚫어보는 듯한 한 쌍의 반점이 있고, 단단한 몸과 다리, 몸통을 뒤덮은 얼룩무늬 역시 호랑이를 떠올리게 합니다.

범게는 1속 1종으로만 존재하는 희귀한 생물입니다. 고창은 우리나라 최대 범게 서식지이지요. 이곳의 수심 5~10m 얕은 모래 바닥에서 범게는 고둥이나 꽃게 같은 작은 갑각류를 먹으며 살아갑니다. 넓은 모래갯벌과 풍부한 생태계를 품은 고창은 범게에게 그야말로 최적의 보금자리입니다. 고창 갯벌의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되어야만, 범게 또한 지구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범게의 집게발은 단단한 껍질을 깨뜨릴 만큼 강력합니다. 몸통의 가장자리에는 뾰족한 가시가 줄지어 나 있지만, 강한 인상과는 달리 움직임은 느리고 성격은 온순합니다. 강인함과 온순함이 공존하는, 범게만의 묘한 매력이 있지요.

## More about Tiger Crab

The tiger is often seen as a symbol of Korea. But there's another creature—found only along Korea's west coast and parts of China—that resembles the tiger in its own way: the Tiger Crab. On its shell are two dark, eye-like spots that seem to stare right back at you, and its sturdy body, legs, and mottled patterns evoke the stripes of a tiger.

The Tiger Crab is a rare species — the only member of its genus and species in the world. Gochang is home to Korea's largest population of these crabs. In shallow sandy waters five to ten meters deep, they feed on small crustaceans such as whelks and swimming crabs. With its wide sandy flats and rich ecosystem, Gochang provides the perfect home for the Tiger Crab. Only when the Gochang Getbol remains healthy can this species continue to thrive on Earth.

The Tiger Crab's claws are powerful enough to crush even the hardest shells, and sharp spines line the edges of its body. Yet despite its fierce appearance, the Tiger Crab moves slowly and remains gentle in nature — a creature where strength and calm coexist, giving it a quiet and captivating charm.

# 황해비단고둥

## Yellow Sea Sand Snail

학명 · Scientific Name | *Umboonium thomasi*



카테고리 · Category	한글	English
생물학적 분류 · Biological Classification	원시복족목, 밤고둥과	Archaeogastropoda, Family Naticidae
크기 · Size	1cm 내외	About 1cm
번식기 · Breeding Season	4~5월	April-May
국내 서식지 · Habitat in Korea	서해안, 남해안 서부	West and southwest coasts of Korea
해외 서식지 · Global Distribution	중국, 일본	China, Japan
식성 · Diet	갯벌 표면의 유기물과 미세한 식물 조각, 규조류, 미생물 등	Decaying organic matter, fine plant debris, microorganisms etc.

## 황해비단고둥에 대해 더 알아 볼까요?

우리나라 서해 바닷가를 거닐다 보면 지름 1cm 안팎의 작은 고둥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회오리 모양의 납작한 껍데기를 가진 이 고둥은 어떤 것은 분홍빛, 또 어떤 것은 푸르스름하거나 흙빛을 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회색빛의 가느다란 무늬가 방사형으로 퍼져 있고, 아랫면은 흰색이지요. 다른 고둥이나 소라와는 달리 표면이 매끄럽고 반들반들 윤이 납니다. 너무 흔한데도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 이 작고 아름다운 고둥의 이름은 '황해비단고둥(서해비단고둥)'입니다.

황해비단고둥과 비슷하게 생긴 종으로는 '비단고둥'이 있습니다. 크기가 약 1.5cm로 황해비단고둥보다 조금 더 크고, 아랫면이 분홍색인 점이 다르지요.

황해비단고둥은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서해안과 중국 연안, 그리고 일본의 일부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희귀한 종입니다. 해안에서 50~100m 떨어진 모래 갯벌에 무리를 이루어 살며, 썰 속의 유기물과 미세한 식물 조각, 미생물을 먹습니다. 갯벌 위에 꼬불꼬불 이어진 가느다란 선이 보인다면, 그것은 아마 황해비단고둥이 지나간 흔적일 것입니다. 갯벌을 깨끗하게 만들고 그 위에 무늬를 남기는, 작은 예술가이자 청소부이지요.

## More about Yellow Sea Sand Snail

Stroll along the western shores of Korea, and you might spot tiny snails barely a centimeter wide glinting in the sand. Their flat, spiral shells come in shades of soft pink, bluish gray, or earthy brown. Look closely, and you'll see fine gray lines fanning out like ripples in water, while the underside shines pale white. Unlike most snails or conchs, their shells are smooth and glossy — as if polished by the sea itself. It's a creature so common in Korea that many overlook it, yet few know its name: *Umbonium thomasi*, also known as the Yellow Sea Sand Snail.

A closely related species, the Common Top Shell, looks similar but grows slightly larger — about 1.5 centimeters across — and has a pink underside that distinguishes it from its cousin.

Familiar as it may seem, the Yellow Sea Top Shell is actually a rare species, found only along Korea's western coast, the shores of China, and a few parts of Japan. It lives in sandy getbols 50 to 100 meters from the shore, feeding on decaying organic matter, bits of plants, and microorganisms buried beneath the surface. If you ever notice fine, winding trails drawn across the sand, they were likely left by this tiny creature — a quiet artist and diligent cleaner of the getbols, leaving graceful patterns as it goes.

# 갯벌에서 관찰할 수 있는 다른 저서생물들

Other Bottom-dwelling Species You Can See in the Getbol



말뚝망둥어

Shuttles hopfish



바지락

Manila clam



칠게

Sentinel crab



대추귀고둥

Ellobium chinense



흰발농게

Milky fiddler crab



갯강구

Wraft roach



갯고둥

*Batillaria multiformis*



민챙이

Korean mud snail



두토막눈썹참갯지렁이

*Perinereis linea*



가리맛조개

Chinese razor clam



키트 활용법 | How to Use the Kit

**나만의 작은 갯벌 만들기**

Creating Your Own Mini Getbol

## 나만의 작은 갯벌 만들기

### Creating Your Own Mini Getbol

이 활동은 웨니어 지형과 연흔 등, 고창 갯벌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풍경을 모래로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입니다. 손끝으로 모래를 다듬으며 작은 정원 속에 바다의 숨결을 담아보세요. 나만의 작은 갯벌을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창작의 즐거움과 명상적 몰입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힐링 키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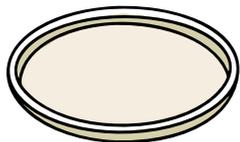
This activity invites you to recreate the landscapes of the Gochang Getbol — from its ripples to the unique chenier formations — using sand.

As you smooth and shape the sand with your fingertips, capture the breath of the sea within a small garden of your own. Through this gentle act of creation, the kit offers a moment of calm and focus — a meditative art experience inspired by the living rhythms of the getbols.



## 재료소개

### Meet the Materials



#### 갯벌 트레이 · Getbol Tray

둥근 나무 접시 모양의 트레이는 나만의 작은 갯벌 세상을 담는 바탕이 됩니다.

A round wooden tray that serves as the base for your miniature Getbol world.

#### 모래 3종 · Three Types of Sand

입자 크기와 색이 다른 세 가지 모래로, 고창 갯벌의 다양한 질감과 층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There are three kinds of sand in different colors and grain sizes, allowing you to recreate the varied textures and layers of Gochang Getb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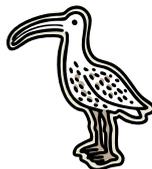


#### 표현 도구 · Expression Tools

모래를 다듬고 무늬를 내며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작은 도구들입니다. 파도의 흐름을 그리고, 바람의 자취를 남겨보세요.

These small tools are for smoothing, shaping, and patterning the sand. Use them to draw the flow of waves or trace the path of the wind.

## 나무 레이저 커팅 생물 오브제 · Wooden Laser-Cut Figures



#### 알락꼬리마도요 · Far Eastern Curlew

길고 휘어진 부리가 특징인 철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p.30 참고)

A migratory bird known for its long, curved bill. (See p.30 for details)



#### 통통마디 · Glasswort

갯벌에 자라는 염생식물로, 가을이면 붉게 물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p.36 참고)

A salt-tolerant plant that grows in getbols, turning bright red in autumn. (See p.36 for details)



#### 황해비단고둥 · Yellow Sea Sand Snail

반들반들한 나선형 껍데기가 아름다운 고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p.50 참고)

A small snail with a glossy, spiral shell. (See p.50 for details)



#### 조약돌 & 미니어처 풀 ·

#### Pebbles & Miniature Grass

작은 돌맹이와 풀 모형으로 갯벌 풍경을 더욱 자연스럽고 생동감 있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Smooth stones and tiny grass models to complete your Getbol scene with a natural, lifelike tou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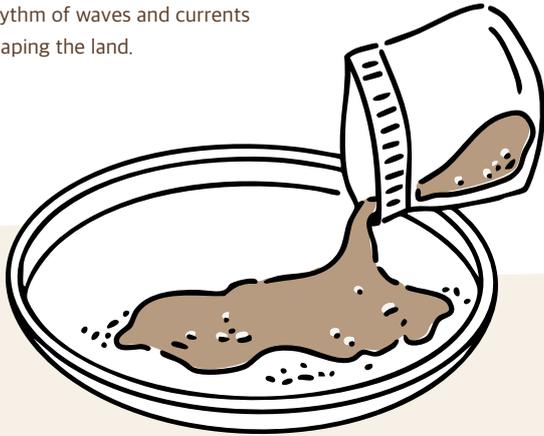
## 키트 체험 과정

### Getbol Kit Experience Process

#### ① 갯벌 지형 만들기 · Create the Getbol Base

가장 먼저 갯벌 정원의 기본 지형을 만들어줍니다. 고창 갯벌은 바닥의 경사가 완만하고, 바닷물이 넓고 크게 드나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파도와 조류가 만들어낸 자연의 리듬을 떠올리며, 갯벌 트레이에 '모래 1'을 넓게 퍼 발라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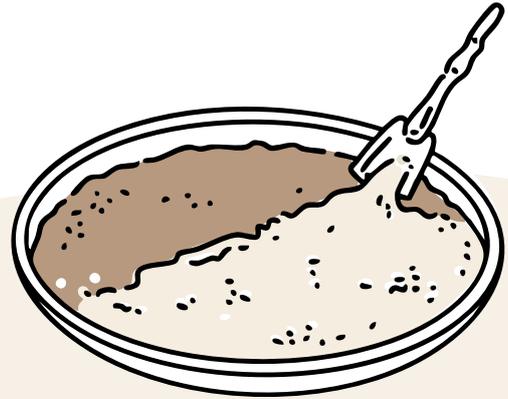
Begin by creating the base layer of your miniature Getbol garden. The Gochang Getbol is known for its gentle slope and the wide reach of its tides. As you spread the 'Sand 1' evenly across the tray, imagine the rhythm of waves and currents shaping the land.



#### ② 갯벌 층 만들기 · Layering the Getbol

고운 입자의 모래로 이루어진 '필갯벌'은 진흙처럼 부드럽고, 거친 입자의 '모래갯벌'은 물빠짐이 좋고 단단하지요. 이처럼 다양한 환경이 어우러져, 고창 갯벌에는 수많은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만들어집니다. 고창 갯벌의 다양함을 표현하기 위해, '모래 2'를 한쪽 방향으로 뿌려 층을 만들어봅니다. 필요에 따라 '모래 1'과 '모래 2'를 서로 다른 높이로 쌓아 올려, 색과 질감이 달라지는 갯벌의 층을 표현해보세요.

Fine-grained sand forms soft and clay-like silt Getbols, while coarse-grained sand creates firm sand Getbols with better drainage. These different environments come together to support the incredible biodiversity of the Gochang Getbol. To express this variety, sprinkle 'Sand 2' across the base in one direction to form layers. You can also build up 'Sand 1' and 'Sand 2' at different heights to show the natural variations in color and texture.



### ③ 연흔 다듬기 · Making Ripples

다듬팽이로 표면을 고르게 정리한 뒤, 모래 갈퀴로 파도의 자취인 '연흔 (ripple)'을 그립니다. 연흔은 파도와 바람이 만들어낸 모래의 결, 즉 갯벌 위에 남은 시간의 흔적입니다. 그 외에도, 작은 웅덩이나 물결 무늬를 만들어 보며, 손끝에서 모래로 이어지는 감각을 느껴보세요.

Smooth the surface with a small rake, then use the comb tool to draw wave patterns — the ripples left by wind and water. Ripples are traces of time, patterns carved by the movement of nature. Try adding tiny pools or wave-like textures, and feel the connection between your hands, the sand, and the sea.



### ④ 쉘니어 표현하기 · Recreating the Chenier

이번에는 고창 갯벌의 가장 독특한 풍경 중 하나인 '쉐니어'를 표현해봅니다. 쉘니어(chenier)는 조개껍데기나 모래가 바람과 파도에 밀려와 길게 쌓여 형성된 좁은 언덕입니다. 고창 갯벌은 쉘니어와 염습지, 사구, 펼갯벌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어, 세계적으로도 드문 갯벌 지형을 이루고 있지요. '모래 2'로 지면을 높이고, '모래 3'을 더해 입체감을 주어 쉘니어를 완성해보세요.

Now, recreate one of the most distinctive features of the Gochang Getbol — the Chenier. A Chenier is a narrow, elongated ridge formed by shells and sand carried ashore by wind and waves. In Gochang, Cheniers connect seamlessly with salt marshes, sand dunes, and silt flats, forming one of the world's rarest coastal landscapes. Build up the surface using 'Sand 2', then layer 'Sand 3' on top to give it shape and dimension.



## ⑤ 생물 흔적 남기기 · Adding Traces of Life

고창 갯벌은 수많은 저서생물과 철새, 식물들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생물다양성의 터전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갯벌에도 생명들을 초대해보세요. 조약돌과 풀 모형으로 생동감을 더하고, 통통마디, 황해비단고둥, 알락꼬리마도요 모형으로 생태계를 완성합니다.

The Gochang Getbol is home to countless species of benthic creatures, migratory birds, and halophyte plants — one of the richest ecosystems on Earth. Now, bring life into your own miniature Getbol. Place small pebbles and tufts of grass for texture, and add the figures of Glasswort, Yellow Sea Sand Snail, and Far Eastern Curlew to complete your tiny ecosystem.



## ⑥ 감상하고 명상하기 · Observe and Meditate

완성된 갯벌 정원을 잠시 바라보며 고요한 시간을 가져봅니다. 살아 있는 갯벌의 숨결, 바람의 흐름, 생명의 움직임을 떠올리며 마음을 정돈하세요.

Take a moment to pause and gaze at your finished Getbol garden. Imagine the breath of the sea, the whisper of the wind, the quiet pulse of life that flows through the real Getbol.



명상 음악 듣기 — QR 스캔  
Scan for meditation music

**명상 1** | 연상되는 단어를 하나 떠올려보세요.  
(예: 고요, 바람, 생명, 연결)

**명상 2** | 떠오른 이미지나 감정을 마음속으로 되뇌거나,  
짧게 기록해 보세요.

**Meditation 1** | Think of words that comes to mind  
(ex) calm, wind, life, connection)

**Meditation 2** | Recall or jot down an image or feeling  
that arose as you observed your Getbol.

## ⑦ 비우기 · Clearing the Scene

선택사항 · Optional

생물 모형을 치우고, 모래를 고르게 펴 정리합니다. 갯벌을 비우는 이 과정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마음을 비우는 시간입니다. 표현 도구 중 하나인 삽으로 모래를 천천히 떠서 비닐봉투에 다시 담아보세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점점 비워지는 트레이를 바라보며 쌓였던 생각과 감정도 함께 내려놓고, 다시 시작할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Gently remove the creature figures and smooth out the sand. Emptying the getbol is not just about tidying up — it's also a moment to clear your mind. Using the shovel, gently scoop the sand and place it back into the bag. No need to rush. Slowly, as the tray becomes emptier, let go of the thoughts and feelings that have piled up, and create space within yourself to begin again.



발행처 | (재)고창문화관광재단  
발행일 | 2025년 11월  
발행인 | 심덕섭  
총괄기획 | 이문식 고창문화도시센터장  
총괄운영 | 치유문화팀(유정선 팀장, 이승우 사원, 이지연 PM)  
기획제작 | 해방해방(이연우, 김진아, 백조은, 오린지)  
감수 | 생태교육허브 물새알(여상경)  
자문 | 행동하는 생태교육센터 함께지구(최선하, 고희정)  
문의 | 063)561-1110 gcc23.co.kr

© Copyright 2025. 해방해방.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고창군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으며, 무단 전제와 복제를 금합니다.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고창문화관광재단과 해방해방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